

외측 도출과정의 재 고찰: 문화 간 화용론적 관점에서

정혜인* · 한천영**

충남대학교
청운대학교

Time to Rethink the Nature of Explicature from the Intercultural Pragmatic Perspective

Chong, Hyein* and Han, Chun-Yo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woon University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OPEN ACCESS



<https://doi.org/10.18627/jslg.36.4.202102.511>

pISSN : 1225-4770
eISSN : 2671-6151

Received: January 10, 2021

Revised: January 29, 2021

Accepted: February 08, 2021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1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후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게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4, 511-524. The first step of understanding speaker's utterance is to comprehend what the speaker explicitly said. Just decoding linguistic elements has not been considered enough to understand the explicit meaning of utterances fully. The relevance theoretic term explicature sheds light on the way we interpret the explicit meaning of the speaker. In situations where speakers from different cultures communicate in a common language, deriving explicatures becomes more crucial and challenging. However, explicature is criticized that it appears to be hearer-centered by intercultural pragmatists. This paper aims to stipulate the nature of intermediate level of explicit meaning and then try to broaden the concept of explicature to ensure that hearers consider the speaker's intersubjectivity and egocentrism in the process of explicature deriv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hungwoon University)

Keywords: explicature, relevance theory, speaker meaning, explicit meaning, intercultural pragmatics

1. 서론

우리가 상대의 발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이어가는가는 화용론의 오랜 연구과제중 하나이다. 인간의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먼저 대화 상대가 직접 발화한 명시적 발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화에 드러나지 않은 간접적 의미와 발화의도를 추론하며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 후 그 발화에 따른 자신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며 의사소통을 이어간다. 이러한 인간의 의사

소통은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는 고도의 두뇌 추리게임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사소통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의 성공적 의사소통인 듯 보이지만 결국 상대를 오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잘못 전달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실패는 같은 모국어 사용자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일어난다. 화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모국어 화자들 사이의 대화의 경우, 발화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발화 이면에 담긴 의미를 눈치 채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실패한다고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화용론 연구의 바탕이 되는 Grice(1989)의 연구는 화자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해진 것의 의미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함축된 것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또한 발화에 직접 담기지 않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읽어내어 발화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의사소통 실패는 발화 자체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에서 올 수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대 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경우, 기성세대는 어린세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과도한 생략이 담긴 발화를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모국어 화자끼리의 의사소통에서도 그러할 진대, 비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상황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발화된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목표어 문화권의 문화적, 규범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제로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경험이나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발화에 사용되는 언어의 여러 어휘의 의미, 중의적 표현의 의미, 문장 구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발화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도 단어의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 뿐 아니라 문맥을 통해 추론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모국어 화자들 간의 의사소통에서조차 명시적 의미의 해석이 의사소통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면, 비 모국어 화자의 의사소통에서 발화된 내용 자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Kecskés(2004)는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경우를 문화 간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라 정의하였다. 20세기 후반 이후 통신과 기술의 비약적 발달은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었고,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2020년에도 세계인들은 유튜브와 개인 SNS를 통해 전 세계인들과 아픔을 나누며 의사소통 하고 있다. 영어는 공용어(lingua franca)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고 영어 의사소통 양상을 살펴볼 때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간의 의사소통과 비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이 모두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 이상 모국어 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장 기본적 형태의 의사소통이라 전제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발화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what is said)과 발화에 담긴 추론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what is implicated) 사이에 발화된 화용적 중간 이해과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가 더욱 타당해진다. Kecskés(2004)는 화용론 연구가 언어적 의미(linguistic meaning)와 추론적 의미(inferred meaning) 사이의 중간단계(intermediate level)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 중간단계의 의미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고 정리하였다. 이런 중간단계의 의미에 대해 가장 심도있는 접근을 한 것이 바로 관련성 이론의 외축(explicature)이다. 외축은 발화에 담긴 논리적 형태를 화용적 추론을 통해 도출하는 것으로, 발화에 근거하지 않고 순수히 화용적으로 추론하여 얻는 함축(implicatur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Sperber and Wilson, 1986: 182). 외축에 대해서

여러 지지와 비판이 존재해 왔지만 최근 Kecskés를 중심으로 화용론을 사회 인지학적(socio-cognitive) 접근법으로 바라본 문화 간 화용론(intercultural pragmatics)에서는 외축이 화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 있음에도 화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청자 중심으로 복원된 의미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중간단계의 의미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고 외축 개념이 다른 문화권의 화자와 공용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찰해 보려 한다. 이 과정에서 외축이 화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문화 간 화용론의 견해와 관련하여 화자의 개인적 요소와 특성이 반영된 넓은 개념의 외축을 제안해보려 한다. 먼저 2장에서 중간단계의 의미와 사회 화용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사회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외축을 정리한 후 확장된 외축 개념의 도입을 제안하고 그것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에 있어 하게 될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2. 외축과 문화 간 화용론에 관한 선행 연구

2.1 발화의 중간의미에 관한 견해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추론적 의미 사이의 중간 의미에 관한 대표적 개념은 관련성 이론의 외축이다. 먼저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외축은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지에 관한 여러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1.1 관련성 이론에서의 외축

관련성 이론을 주장한 Wilson and Sperber(2002)은 화자의 의미(speaker's meaning)을 분석한 Grice(1989)의 이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그들은 의사소통 당사자들이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라는 Grice 이론의 전반적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Grice가 제시한 양(quantity), 질(quality), 관계(relation), 방법(manner)의 네 가지 격률(maxim)이 발화의 이해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며 이 네 가지 격률이 모두 관련성(relevance)이라는 원칙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말해진 것(what is said)’의 의미는 단순히 언어적 요소를 해석하고 문법적 요소들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 이외에 순수하게 화용적으로 추론된 과정에 의해 복구된 요소들이 더해져야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성 이론은 발화의 이해 과정을 ‘언어적 의미(linguistic meaning)’과 추론을 통해 발화의 논리적 형태가 복원된 명제인 ‘외축’, 그리고 외축 이외 발화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화용적 절차인 ‘함축’의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 Mary drank enough.

위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ary, drank, enough” 라는 어휘의 뜻을 이해하고 문장구조에 관한 문법적 지식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화자는 적어도 누가 Mary인지 Mary가 무엇을 마셨는지, 무엇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해야 발화의 명시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발화를 하는 화자의 태도를 읽어야 보다 정확한 발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즉 발화의 명시적 의미 파악을 위해 발화된 언어적 요소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추론적으로 이해하고 발화에 생략된 내용을 화용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외측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한 Carston(2002)은 외측을 도출하는 화용적 현상으로 탈 중의성(disambiguation)과 의미 포화(saturation), 자유의미보충(free enrichment), 상황의미 구축(ad-hoc concept construction)의 네 가지를 들었는데 정혜인과 이상철(2017)은 이를 화용적 의미선택(pragmatic meaning selection)과 화용적 의미보충(pragmatic enrichment)의 두 단계로 단순화시켜 설명하였다. 외측 도출 과정을 어휘나 문법같은 언어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가 순수하게 화용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네 가지 단계로 세분화하는 대신, 발화에 사용된 항목의 의미를 해석하는 화용적 의미선택 과정과 발화에 생략된 내용을 보충하여 화자의 발화의미를 추론하는 화용적 의미보충의 두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는 외측 도출과정이 언어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결국 맥락속에서 화용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탈 중의성과 의미포화처럼 언어적 요인에서 비롯된 외측 도출 과정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의 정혜인과 이상철(2017: 847)의 예문을 살펴보자

(2) If she gets through, she'll treat us to a drink. (She = Jane)

위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she’와 ‘us’가 누구인지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하고 ‘get through’와 ‘treat’가 여러 의미 중 무슨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drink가 맥락속에서 정확히 어떤 종류의 음료 혹은 술을 뜻하는지 그 상황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즉 발화에 사용된 어휘목록의 의미가 여러 가능성 중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의미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화용적 의미선택을 거친 (2)의 예문의 외측은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3) If [Jane] [GET THROUGH]⁴, she will [TREAT]⁵ the speaker and the other hearers to a DRINK*. ([GET THROUGH]¹=deal with something, [GET THROUGH]²= be connected by phone, [GET THROUGH]³=finish doing something, [GET THROUGH]⁴=pass a test, [GET THROUGH]⁵=pass a law. [TREAT]¹=behave toward someone, [TREAT]²=deal with something, [TREAT]³=cure someone/something, [TREAT]⁴=be nice to someone. [TREAT]⁵=to buy something special for yourself/someone else, DRINK*=a amount of liquid that each one of invitees wants to drink) (정혜인 · 이상철, 2017: 849)

이처럼 발화에 사용된 언어적 항목들의 의미를 보편적 배경지식과 맥락적 정보를 사용하여 선택하는 과정이 외측 도출에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외측 도출에는 발화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발화의 명시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화용적으로 보충해 해석하는 화용적 의미보충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앞서 예로든 (1)의 예문의 경우 ‘enough’ 뒤에 무엇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인지에 관한 정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를 추론을 통해 보충해 내야만 화자의 발화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위 예문이 Mary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나 용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Mary의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한 발화라면 청자는 다음과 같은 외측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4) Mary drank enough [drink to say “I love you” to the man she is into at the moment].

최대주의(maximalists)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Sperber와 Wilson, Carston, Recanati 등은 외측이 의사소통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며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언어적 지식만을 활용하여 도출한 의미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하였

다. 언어적 의미에 화용적 추론과정이 더해진 외축을 통해서만이 발화의 명시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언어적 의미와 외축사이의 간극은 매우 크다고 본 것이다. 관련성 이론에서는 이처럼 청자가 화자의 발화 속 명제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화용적 추론과정을 외축 도출과정으로 보았고 외축 도출 이외의 추론과정은 모두 함축이라 구분하였다. 화자는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때 까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관련성 있는 방향으로 추론하여 외축과 함축을 도출하며 화자의 발화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이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화자의 발화 이해 모형인 것이다.

이러한 외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외축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최소한으로 규정하고자 한 최소주의의 견해와 외축의 한계점을 지적한 사회인지적 접근법의 견해, 외축의 강도를 다 세분화 한 다중주의자들의 견해를 차례로 살펴보자.

2.1.2 최소주의(minimalists)의 중간단계 의미

글자 그대로의 언어적 의미와 함축적 발화이해의 단계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의미를 강조하였던 관련성 이론과 최대주의 학자들과는 달리 Borg, Cappelen와 Lepore 등의 최소주의 학자들은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 통사론적(lexico-syntactic) 구성소의 의미만으로 문장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들은 Grice가 구분한 발화된 것의 의미(what is said)가 의미론적으로 충분히 문장의 기본 의미가 되고 그 외의 추론 과정은 함축이라는 모형이 의사소통을 설명하는데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최소주의 학자들은 발화에 사용된 모든 어휘가 꼭 맥락 의존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 Carston(2002), Recanati(2004)같은 맥락주의자들은 발화 속 대부분의 어휘는 맥락 의존적이므로 상황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최소주의 학자들은 문맥 의존 지시어(indexicals)나 시제 표지어처럼 통사적으로 기인된 몇몇 언어요소를 제외하고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도 문장의 진리조건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소주의 학자들이 중간 단계의 의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을 뿐이다. Borg(2004; 2016; 2019)는 화자의 발화를 청자가 직관적으로 다 읽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청자의 주관적 화용론적 의미 추론 과정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문장 속 어휘적, 통사적 요소만으로 도출한 최소 내용(minimal contents)을 해석하는 것이 의사소통 상의 기본 단계가 된다고 본 것이다. Borg(2019)는 언어적 의미 교환을 언어적 내용(linguistic content), 외축 내용(explicature content), 함축내용(implicature content)의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불완전한 상태의 논리적 형태(logical form: LF)를 뜻하는 언어적 내용은 화용적 의미보충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뜻하며, 외축내용과 함축내용은 화용적 추론으로 얻어진 의미이다. 그러나 Borg는 외축의 도출을 위해 요구되는 화용적 과정과 함축을 도출하는 화용적 과정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축은 “limited pragmatic developments of logical forms(Borg, 2016: 4)” 인데 어느 정도로 제한된 것이 외축이고 어떤 것은 함축인지 구별하는 맥락주의 학자들의 설명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Borg는 추론이 외축인지 함축인지를 구별하는 여러 테스트도 허점이 많아 입증이 어렵고 Sperber와 Wilson(1986)이 말한 것처럼 외축을 “what the speaker intends to make manifest”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너무나 자유로운(liberal) 것이 될 것이라 하였다. 또한 함축적 의미가 분명히 다가오는 경우 굳이 화자의 발화 그대로의 의미를 성의 있게 해석해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Borg의 주장처럼 화자가 일부러 거짓을 말하거나 아이러니, 빈정대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외축의 도출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들리는 말 그대로를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의 대화의 경우 일정부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 화자가 대화에 참여한 경우 외축의 도출이 무의식적, 즉각적으로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화 자체의 의미를 맥락적 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그 발화의 추론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기본 의사소통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1.3 사회 인지적 접근법의 화자의 발화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후기 그라이스 학파(post-Griceans)의 학자들과는 달리 Kecskés는 사회인지적 접근법(socio-cognitive approach)을 제안하며 화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회인지적 접근법은 그동안의 화용론이 화자의 의미를 분석한다고 해놓고는 정작 화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청자 위주의 해석 모형이라고 비판하였다. 화자가 발화한 내용의 이해를 외축이라기보다는 화자의 발화(speaker's utterance)라고 칭하며, 화자가 발화에 더해 놓은 화용론적 의미가 화자의 발화라고 설명한 것이다. Carston(2002)이 주장한 화용적 의미 강화(free enrichment)의 경우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도중 완전히 화용적인 이유로 추론된 의미를 뜻하는데, 사실 이것은 화자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유로 선택한 표현에서 생겨나는 의미라고 하였다. 발화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화용적 의미는 화자의 발화의 산물이므로, 청자가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중시하는 외축 보다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과 발화 의도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Kecskés는 “In SCA, speaker's utterance is a full proposition constructed by the speaker; in contrast, explicature is a full proposition of the hearer's reconstruction(2014: 54)” 라고 하며 청자의 의미 추론은 진정한 화자의 발화를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화자 중심 화용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화자의 의미를 추론하는데 있어 화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미 선택 과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있어 상대의 발화를 이해하는 것이 청자의 몫이라는 사실은 모국어 화자의 대화에서나 비 모국어 화자가 참여한 대화에서나 다르지 않다. 청자의 발화 이해에 화자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며 외축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다음 장에서 이에 관해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할 것이다.

2.1.4 다중론자들의 다중 중간의미 표현 모형

마지막으로 살펴볼 학자들은 다중론자(multiplists)들이다. 이들은 언어적 의미와 함축 의미 사이의 중간 의미를 여러 단계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Ariel(2002; 2008)은 특권적 의사소통 이해 표현(privileged interactional interpretation representation, 이하 PII라 한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화자의 발화 속 진리 조건적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Ariel에 의하면 PII는 대부분 외축에 해당하는데 보다 함축이 많이 들어간 외축이 존재하고 함축보다는 언어적 의미가 더 많이 반영된 외축의 단계가 존재하므로 이것들이 각각 다른 단계의 PII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적 의미의 해석만으로 도출된 발화된 것의 의미(what is said)부터 화용적 추론이 더해진 의미까지 모두 PII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Sternau et al.(2017)는 발화의 해석의 강도에 등급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담화 참여자가 어떤 발화를 만일 들었다면 어떻게 추론적으로 해석했을 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먼저 순수 언어적 의미, 외축, 강한 함축, 약한 함축의 네 단계를 설정하고 맥락적 일관성, 발화된 내용으로 이끌어 낼 법한 의미인지에 관한 여부, 추후 발화로 부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위 네 단계의 표현을 테스트 하였다. PII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더 강한 해석일수록 맥락과 일관성이 있고 발화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며 다음 발화로 부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은 강하게 의사소통된 메시지가 더 강한 해석을 낳고 “bare linguistic meaning > explicature_{max} > Implicature_[strong] > Implicature_[weak](p.100)”의 등급으

로 해석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부정 가능성(deniability) 테스트를 통해 외축 자체에도 보다 더 강한 외축이 있고 더 약한 외축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문법적 이유로 추론이 이루어지는 지시어 해석, 탈 중의성(disambiguation) 관련 해석, 시제 관련 해석, ‘and’의 해석 등은 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외축이 될 수 있고 화용적 이유로 도출된 외축은 보다 약한 강도의 해석을 낳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발화에 직접적으로 등장한 어휘 항목의 경우 추론의 개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강한 해석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문법적, 언어적 이유로 추론이 더해지는 경우는 비교적 강한 해석이 가능하고 순수하게 화용적 이유에서 추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해석의 강도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다중론자들의 여러 테스트는 직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내용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 외축을 의사소통의 기본 모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축의 단계와 함축의 단계를 더 세분화 하여 설명한다는 주장에는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2.2 문화 간 화용론에 관한 이해

문화 간 화용론은 기존의 화용론이 설명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덜 두고 있었던 여러 문화권 출신 화자들의 의사소통 양상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작된 학문이다. 오늘날 문화 간 의사소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문화 간 의사소통은 모국어 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것을 단순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는 언어적 역량 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문화 간 이해도나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관습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화자들 사이의 배경지식이나 공통특징(commonality), 관습 등의 차이로 핵심 공통점(common ground)이 충분치 않은 경우, 그동안 화용론의 전제였던 화자와 청자 간의 협력(cooperation)이나 화자의 의도(intention) 파악 같은 의사소통의 특징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 Kecskés는 이를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here is more reliance on language created ad hoc by individuals in the course of interaction than on prefabricated language and preexisting frames. In the case of communicators who use a common language and whose L1s diffe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 lack of full control over language skills (L2) and full knowledge of conventions, beliefs and norms in the target language (L2) used as the medium of communication may lead to a more conscious approach to what is said, and how it is said. (Kecskés, 2014: 2)

그는 또한 현재 화용론 연구가 점점 더 문화 간 의사소통이 빈번해 지는 현 시대 의사소통의 양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로의 모국어가 다른 화자들이 공용어(common language)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문화를 대표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화용론의 이론적 토대는 이 이슈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여전히 단일 언어(monolingual)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단일 언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건 간에 의사소통의 원칙, 방식, 원리, 해석 등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전제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사소통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중언어(bilingual) 다중언어(multilingual) 발화와 그 이해

과정에 있는 모든 언어적 특성들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용 언어에 따라 자라난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 발화의 과정과 발화의 이해 과정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문화 간 화용론에서 말하는 문화란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허용되거나 장려되는 의사소통 양식이 화자의 지식구조 속에 구조화, 내재화 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통의 믿음, 규칙, 가치, 관습, 행동양식 등이 포함된다. 문화 간 화용론 학자들은 이러한 공통적 문화 양식이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다 서로 받아들이고 반영하는 문화적 요소가 같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이나 같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문화에는 보편적 요소와 상대적 요소가 모두 존재하고 이를 반영한 화용론 이론도 그 문화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과 개인별로 자신이 보여주는 특성을 모두 반영해야 의사소통에 사용된 발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 간 화용론의 모체가 되는 사회인지적 접근법은 인지적 접근법과 사회문화적 접근법을 통합하여 의사소통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했다. 인지적 접근법에서는 발화를 하기 전 화자가 가지고 있던 의도를 보다 중시하였고 사회문화적 접근법에서는 대화를 하는 도중에ダイナ믹하게 변하는 발화의도를 보다 강조한다. Kecskés(2008)와 Kecskés 와 Zhang(2009)가 주장한 이 접근법은 개개인의 사전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사전 의도와 실질적 대화 상황에서 발현되는 발화 의도 모두가 의사소통의 중요 요소라 이야기 한다. 이들은 개인의 사전에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이나 경험과 함께 실제 대화 상황에 관한 이해와 대화 속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함께 구성해 가는 맥락적 지식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문화 간 화용론의 경우 발화 수준보다는 담화(discourse) 수준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비 모국어 화자의 언어 구사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어에서 문장, 그리고 대화 전체로 해석해가는 상향식(bottom up) 해석 뿐 아니라 먼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파악하고 발화와 어휘 목록을 거꾸로 추론해 가는 하향식(top down) 접근 또한 하게 된다고 하였다.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그 발화 하나만을 놓고는 의미를 추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화 수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그 발화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화의 이해는 다른 문화와 관습, 신념 등을 가진 타 문화권 화자와의 대화에서 더욱 어려워지고 Grice가 말한 전통적 상향식 접근으로는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러므로 명시적 의미 해석의 단계가 최소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 간 화용론은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과 그 사회에 존재하는 상황적 지식을 모두 의미 구축과 이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규범적으로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요소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맥락적 정보 모두를 아우르며 우리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제2언어로서 영어를 연구하는 비 원어민 학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단일 언어를 전제로 한 언어 연구가 모든 언어 연구의 표준이 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히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3. 화자의 입장을 고려한 외측의 도출과정

3.1 문화 간 화용론의 입장을 반영한 외측 도출과정

관련성 이론 학자를 포함한 Grice 이후의 화용론 학자들이 의사소통에 관하여 설명할 때 청자 위주의 발화 수용과정을 설명하는데 치중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Grice(1989)의 연구 역시 화자의 의미(speaker's meaning)을 발화

된 의미와 추론된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지만, 실제 화자가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발화를 했는지 보다는 청자가 그 발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렇다고 하여 의사소통이 상대의 발화를 이해하는 것이 청자의 몫이 아니라 말할 수도 없다. 결국 화자는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특정한 의미가 담긴 발화를 하고 그것을 듣는 청자가 그 발화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화자의 문화적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화자의 발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발화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같은 분야, 같은 세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질적 집단 간의 대화가 아닌 이질적 구성원이 참여한 대화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세대 간 차이가 나는 경우 서로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가 일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마찬가지로 이며 모국어가 다른 경우 화자에 관한 이해가 더더욱 더 많이 요구된다. 문화 간 화용론에서 말하는 화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 간 화용론에서는 사회인지적 프레임이라는 이론적 바탕에서 대화 참여자가 속한 언어 커뮤니티의 문화적 특징과 대화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구축되는 의사소통 상황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한다. Kecskés(2014: 19)는 문화 간 화용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목표어의 문화적 규범, 관습, 믿음 같은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담화 참여자가 함께 대화 상황에서 구축해가는 즉흥적 요소들이 중요해진다. 영어가 아닌 서로 다른 모국어를 쓰는 화자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영어에 대한 규범, 관습, 믿음의 강도는 모두 다르다. (2) 협력은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담화 참여자들은 인간은 의사소통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이해와 공통점을 마련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열심히 협력하는 것이다. (3) 사회적 프레임은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요소가 의사소통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프레임은 하향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 간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향식으로 프레임을 구축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상호주관성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 참여자 사이에 구축해나가야 하는 문제가 된다. (4) 맥락 민감성은 동일 문화 내 의사소통에서보다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더 커진다. 의사소통 시 벌어지는 상황적 맥락보다 때로 대화 이전의 맥락이 더욱 중요할 때도 있다. (5) 목표어에 내재하는 정형화된 언어(formulaic language)나 사고를 조직화하는 방식 같은 것은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6) 명백한 의미 협상이나 문제를 예상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과 같은 의사소통 전략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문화 간 의사소통 시 외측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발화의 해석에 사용하는 맥락적 정보가 특히 의사소통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발화의 이해에 함께 이야기 하는 화자에 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 대화 당사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대화중 얻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통해 화자가 특정 어휘나 표현 양식을 사용한 이유를 유추하게 되면 보다 정확히 외측과 함축을 도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2 외측에 고려해야 할 화자의 특성

청자가 도출하는 외측이 화자가 발화한 정확한 의미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화자에 관한 정보를 많이 고려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관련성 있는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Kecskés(2014)는 화자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를 자기중심성(egocentrism)으로 설명했다. 화자와 청자는 그들이 언어를 발화하고 이해할 때 공

통의 지식을 등한시 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발화하곤 하고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의사소통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중심성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의견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사전 경험이나 특정 상황의 빈번한 노출, 자신만의 감정이나 규정이나 관습을 인식하는 정도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황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 문화 간 화용론에서 말하는 자기중심성이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에서 발화와 발화의 이해의 첫 단계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 Keysar 와 Henly(2002)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효과적 발화를 하였다고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신이 생각한 내용이 상대에게도 전달될 수 있으리라 믿는 가정에서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Kecskés(2014)는 관련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협력의 경우, 담화 참여자는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발화의 해석의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개인적 관심이나 선호도가 낮아 협력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자기중심성은 의식적, 부정적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문화 간 화용론에서 말하는 무의식적 자기중심성과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최적의 관련성도 결국 청자의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자신이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인지적으로 효과적 자극을 주는 관련성 있는 해석을 하는 과정 또한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Kecskés(2008)는 화자의 의미가 어느 정도 발화 이전의 대화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화자가 발화에 사용하는 어휘 선택에 반영된다고 하였다. 또한 화자가 이 발화의 명시적 의미를 이해할 때 이전에 이 화자와 이야기 했을 때 그 어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경험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고 하였다. 처음 만난 대화 상대와의 대화가 아니라면 이전에 그 사람과의 대화 경험을 떠올리며 대화를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 소통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사람들마다 직설적 표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 간접적으로만 표현하려 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발화에 역설이나 비꼬는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다면 화자의 발화에 담긴 명시적,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됨은 자명하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사전 경험을 누구나 사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특정인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상황 의미를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곤 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5) A Chinese and an American student are talking:

XIAOJING: Did you read the paper of Norton on social identity?

SARAH: Yes, I did.

XIAOJING: Do you know in what magazine it was published?

SARAH: Magazine? Do you mean journal?

XIAOJING: Oh, yes.

SARAH: It was in TESOL Quarterly.

(Kecskés, 2014: 56)

여기서 중국인 화자 XIAOJING 논문이 실리는 학술지를 ‘journal’이라는 대신 ‘magazine’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Kecskés 는 위와 같이 중국인 영어 화자들은 학술지를 “magazine”이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사실 영어에서 magazine과 journal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영어 화자들과의 의사소통 경험이 쌓이면 “magazine”의 상황의미가 “journal”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예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담겨있다.

(6) KOREAN: Jill, do you want me to help you with your essay?

AMERICAN: Don't patronize me, please.

KOREAN: You say, you don't want support?

AMERICAN: Please just don't . . . Okay?

(Kecskés, 2014: 57)

위 상황을 들여다보면 한국인 화자는 모국어인 한국어의 “후원하다”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지지를 보내는 긍정적 어휘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인 화자가 “patronize”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어의 “patronize”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후원자가 되어준다는 기본적 뜻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거래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부정적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patronize”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이 할 수 있으니 못한다고 생각하여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어휘가 사용되는 문화적, 상황적 공통 지식이 없다면 이 어휘의 상황 의미를 제대로 도출해 내기 어려운 것이다.

Kecskés와 Cuenca(2005)의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그들은 L2 학습의 첫 단계에서 새로운 단어를 마주했을 때 모국어의 컨셉에 기반하여 그 단어의 개념적(conceptual) 의미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국어에서의 개념이 목표어 개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의사소통시 문제를 야기하곤 한다. 또한 이들은 목표어 유창성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모국어 개념에 덜 의존하고 목표어의 사용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사회문화적 지식과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화자가 어느 문화권에서 온 사람인지 목표어 구사 수준은 어떠한지, 또는 목표어 문화권에서 얼마나 오래 생활해 본적이 있는지 같은 문화와 언어에 관한 이해도가 더해진다면 화자가 발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이 왜 사용되었고 또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다.

3.3 확장된 외축 개념에 대한 제안

발화에 담긴 숨은 의미와 의도를 추론하여 얻은 의미를 함축(implicature)이라 칭하는 것은 모든 화용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대응하여 발화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의미 해석에 관한 추론을 외축(explicature)라고 칭하는 것은 운(rhyme)이 잘 맞는 직관적이고 매력적 선택이다. 외축의 개념을 기존의 관련성 이론의 개념보다 확장시켜 사용한다고 해서 꼭 새로운 용어를 가져다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시 서로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최선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 발화와 발화의 해석을 하고, 이 과정에서 명시적 의미의 해석과 관련된 외축을 도출하고

그것을 뛰어넘은 함축을 추출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소통 모형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 간 의사소통의 경우 명시적 의미의 이해가 모국어 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처럼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특정 문화권의 화자가 가지는 보편적 특성이나 그 화자가 목표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는 화자인지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을 알고 그것을 대화의 배경지식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화자의 특성에 관한 고려는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늘 일어나곤 한다. 원어민 강사들이 자신의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상대로 의사소통 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그들이 특정 문화권과 특정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경험적으로 그 문화권 화자의 특징에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의 발화를 오해 없이 발화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축을 도출하는 과정에 상대에 관한 이해에서 오는 즉각적 화용적 의미 선택과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간 화용론자들의 주장대로 외축 도출은 청자 위주의 모형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여 청자가 의미 해석 과정에서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물론 청자가 화자가 의도한 정확한 발화 의미를 그대로 추론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하여 화자가 실제로 발화한 명시적 발화 의미와 외축은 같지 않다는 여러 비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소통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상황과 상대를 이해하여 대화를 진행하며 이루어진다. 어차피 내가 아닌 남의 말의 의미와 발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자가 어떠한 원리 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의 발화를 이해하는가 하는 청자 중심의 의사소통 연구 방식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타당한 접근법인 것이다.

보편적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의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외축의 개념과 자신에게 최대한 관련성 높은 해석을 해내는 발화의 이해과정에 큰 수정을 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성의 있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던 화자의 특성이 청자의 발화 해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이 더해진다면, 외축과 함축을 통한 발화의 이해는 문화 간 의사소통상황이 점점 더 빈번해져가는 현대인들의 의사소통을 설명하는데 더욱 적절한 모형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외축의 기본 도출 과정인 화용적 의미 선택과 화용적 의미 보충 시 화자의 발화 의미 추론의 근거로 화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언어적 이유가 아닌 화용적 이유로 발화 의미 추론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흔히 청자가 맥락적 정보와 배경지식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배경지식에는 발화의 순간에 벌어지는 상황적 이해 뿐 아니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 관한 문화적 언어적 개인적 정보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다음의 한국어 예문을 살펴보자.

(7) 일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발화를 들은 모국어 한국인 화자들은 대부분 발화 당사자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거나 연변, 사할린 등에서 우리말을 익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실제 한국인들이 위 (7)의 예문처럼 발화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발화를 듣는 즉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화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주로 쓰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여러 매체 등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7)의 발화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 많이 접해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원래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문장구조에 따라

“일(work or business) 이 없다” “혹은 관여 할 일이 없다(none of your business)”라고 해석하는 대신 “괜찮다” 는 뜻이라 해석하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배경지식이 없는 한국인들이라면 이를 매우 무례한 발화라 생각하고 화자를 오해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발화의 해석에 있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여기에는 화자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배려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 문화 간 의사소통이 빈번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나와 다른 상대의 발화를 최대한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언어로 발화하는 입장이던지 상대가 나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이던지 간에, 여러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업무적으로든 개인적 이유에서든 의사소통해나가야 할 필요가 점점 더 늘어가기 때문이다. 학습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발화가 원어인 청자들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 인식하고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표어 문화권의 표현 양식이나 사고 패턴을 익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관련성 이론의 ‘명시적 의미해석 - 외축 도출 - 함축 추론’ 의 의사소통 모형은 동일문화 간 의사소통이나 문화 간 의사소통 모두를 설명하는데 타당한 모형이다. 특히 외축을 통한 명시적 의미의 해석은 문화 간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외축은 청자가 의사소통 시 자신이 유추해 낸 해석이라는 점에서 청자 위주의 해석 모형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외축의 성공적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로 화자가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고려하게 된다. 이것이 화용적 추측에 있어 중요한 배경지식이 되는 것이다.

외축은 화자의 명시적 발화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청자가 화용적 추론을 덧붙여 해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청자가 화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문화적·개인적 특징이 충분히 고려된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라면 그 사람과의 사전 대화 경험에 의해 그 화자의 특성을 미리 알고 그가 사용한 특정 어휘의 화용적 의미를 비교적 정확히 해석해 낼 수 있게 된다. 친분이 없는 사람, 혹은 공적인 상황속에서 대화를 진행한다면 또 그 나름대로 대화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외축을 도출한다. 이는 모국어 화자와의 대화이던지 타 문화권 출신의 화자이던지 간에 똑같이 적용된다.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축을 도출하고 발화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 간 의사소통 시 올바른 외축의 도출이 성공적 의사소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더욱이 화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더해져 확장된 외축의 개념은 서로의 입장을 더 고려하며 남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낳고 이는 성공적 의사소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향후 문화 간 의사소통에 참여한 대화 참여자들이 어떻게 상대의 특성을 고려하며 발화를 해석해 가는 지 구체적 사례와 실험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는 제2언어 학습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정혜인. 2017. 외축을 통한 발화의 화용적 이해.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 정혜인·이상철. 2017. 발화 의미와 외축 (Explicature). 『언어연구』 32.4, 837-856.
- Ariel, M. 2002. The demise of a unique concept of literal meaning. *Journal of Pragmatics* 34.4, 361-402.

- Ariel, M. 2008. *Pragmatics and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g, E. 2004. *Minimal Seman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rg, E. 2016. Exploding Explicatures. *Mind and Language* 31, 335-355.
- Borg, E. 2019. Explanatory Roles for Minimal Content. *Noûs* 53.3, 513-539.
- Cappelen, H. and E. Lepore. 2005. *Insensitive Semantics: a Defense of Semantic Minimalism and Speech Act Pluralism*. Oxford: Blackwell.
- Carston, R. 2000. Explicature and Semantics.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2, 1-44. Reprinted in Stephen Davis & Brad Gillon (eds.), 2004. *Semantics: A Rea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rston, R. 2002. *Thoughts and Utterances: The Pragmatics of Explicit Communication*. Oxford: Blackwell.
- Grice, H.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eckskés, I. 2004. Lexical Merging, Conceptual Blending, and Cultural Crossing. *Intercultural pragmatics* 1.1, 1-26.
- Keckskés, I. 2008. Dueling contexts: A Dynamic Model of Meaning. *Journal of Pragmatic* 40.3, 385-406 .
- Keckskés, I. 2010. The Paradox of Communication: Socio-cognitive Approach to Pragmatics. *Pragmatics and Society* 1.1, 50-73.
- Keckskés, I. 2014. *Intercultural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ckskés, I. and S. Assimakopoulos. 2017. *Current Issues in Intercultural Pragma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EBSCOhost, search.ebscohost.com.libra.cnu.ac.kr/login.aspx?direct=true&db=nlebk&AN=1529358 &lang=ko&site=ehost-live.Socio-cog.
- Keckskés, I. and I. M. Cuenca. 2005. Lexical Choice as a Reflection of Conceptual Flu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9.1, 49-69.
- Keckskés, I. and F. Zhang, 2009. Activating, Seeking, and Creating Common Ground: A socio-cognitive Approach. *Pragmatics & Cognition* 17.2, 331-355.
- Keysar, B. and A. S. Henly. 2002. Speakers' Overestimation of Their Effectiveness. *Psychological Science* 13.3, 207-212.
- Recanati, F. 2004. *Literal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rber, D. and D.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Vol. 14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rnau, M., M. Ariel, R. Giora, and O. Fein. 2017. "6. Deniability and Explicatures". In *Doing Pragmatics Interculturally*.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 Wilson, D. and D. Sperber. 2002. Truthfulness and Relevance. *Mind* 111.443, 583-632.

정혜인(제 1저자), 강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hyeinchong@gmail.com

한천영(교신저자), 교수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청운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E-mail: cyhotel@chungwoon.ac.kr